

#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손 떼라> - 1

○ ○

원문: <https://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32/06/luxemburg.htm>

##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손 떼라

한 혁명가에 대한 중상에 대하여

Written: 28 June 1932.

Source: The Militant, Vol. V No. 32 (Whole No. 128), p. 4 & Vol. V No. 33 (Whole No. 129), p. 4.

Copyright: Leon Trotsky Internet Archive (www.marxists.org) 2014. Permission is granted to copy and/or distribute this document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2.0.

스탈린의 글 '불세비즘 역사의 몇몇 문제들'은 긴 지체 후에야 내게 도착했다. 그것을 받고 한참 동안 나는 그것을 억지로 읽을 수조차 없었다. 그런 문헌은 톱밥이나 퍼진 솔처럼 사람의 목에 달라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침내 그것을 읽고 난 후, 나는 누구도 이 행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거기에는 로자 룩셈부르크에 대한 비열하고 뻔뻔한 중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이 위대한 혁명가를 중도주의의 진영에 넣었다! 그는 증명-물론 증명하지 못한다. 주장할 뿐-한다. 불세비즘은 그 시작부터 카우츠키 중앙파와 결별하는 노선을 가졌지만, 로자 룩셈부르크는 그 동안 좌파에서 카우츠키를 지지했다고. 그의 말을 인용하겠다.

"전쟁으로부터 오래 전에, 불세비키 집단이 러시아에서 형성되고 좌파가 독일 사회민주주의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1903-1904년부터 레닌은 단절을 향한 길, 고국의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기회주의자들과 외국의 제2인터내셔널, 특히 독일 사회 민주주의의 기회주의자들과 둘 다 결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것은, 그러나, 전적으로 이런 사실 때문에 달성될 수 없었다.

"제 2 인터내셔널의, 우선적으로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좌파 사회 민주주의자들이, 약하고 무능력한 그룹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절, 결별이라는 말을 소리높여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이런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정석이다. 1903년부터 불세비키는 우파와 단절할 뿐 아니라 카우츠키 중앙파와도 단절하려 했지만, 로자는 세상을 향해 공개적으로 '결별'이라고 언급하는 것조차 무서워했다.

### 스탈린의 당 역사에 대한 무지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그 자신의 당의 역사에 대해, 가장 먼저 레닌의 이념적 경로에 대해 완전히 무지해야만 할 것이다. 스탈린의 출발점에는 단 한 단어의 진실조차 없다. 1903-1904년에 레닌은, 정말로, 독일 사회 민주주의 내의 기회주의에 대한 타협불가능한 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론적으로 베른슈타인에 의해 지도되던 수정주의 조류만을 기회주의로 보았다.

그때의 카우츠키는 베른슈타인에 대항해 싸우고 있었다. 레닌은 카우츠키를 그의 스승으로 여겼고 이것을 그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에서 강조했다. 그 시기와 그 후 수년간의 레닌의 저작에서 베벨-카우츠키 조류에 대한 원칙적인 비판의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이는 대신 불세비즘은 어떤 독립된 조류가 아니라 러시아의 조건들이라는 언어로 베벨-카우츠키 조류를 번역한 것이라는 일련의 선언을 찾게 될 것이다. 여기 레닌이 그의 유명한 팜플렛 <두가지 전술>에 1905년 중순에 쓴 것이 있다.

"언제 그리고 어디서 내가 베벨과 카우츠키의 혁명주의를 '기회주의'라고 불렀는가? 언제 그리고 어디서 한편으로는 나, 한편으로는 베벨과 카우츠키 사이에 어떤 차이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는가? ...강령과 전술의 모든 중요한 문제에서 국제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의 완전한 단결은 반박될 수 없는 사실이다."

레닌의 말은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며, 의문의 여지 없이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

일 년하고도 절반 뒤에, 1906년 12월 7일에 레닌은 <멘셰비즘의 위기>에서 이렇게 썼다.

“...애초부터(<일보전진 이보후퇴>를 보라) 우리는 어떤 특별한 종류의 볼셰비키주의 조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우리는 단지 모든 곳에서 그리고 언제나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을 방어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내에서는 사회 혁명의 그 순간까지 불가피하게 기회주의적 계파와 혁명적 계파가 있을 것이다.”

멘셰비즘이 사회 민주주의의 기회주의적 계파라고 말하면서 레닌은 멘셰비키를 카우츠키주의가 아니라 수정주의와 비교했다. 게다가 그는 볼셰비즘을, 그 시기에는 그의 눈에 마르크스주의와 동일했던, 카우츠키주의의 러시아적 형태라고 보았다. 우리가 방금 인용한 구절은 부수적으로 레닌이 기회주의와 완전히 결별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단순히 기회주의자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혁명의 그 순간까지 사회민주주의에서 기회주의자들의 존재는 ‘불가피’ 하다고 생각했다.

두 주 후에, 1906년 12월 20일에, 레닌은 러시아 혁명의 성질에 관한 플레하노프의 질문에 대한 카우츠키의 답장을 열렬히 환영했다.

“우리가 주장했던 것 - 기회주의에 대항하는 혁명적 사회민주주의 입장을 위한 투쟁은 어떤 의미에서도 무슨 ‘독창적인’ 볼셰비키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 은 카우츠키에 의해 완전히 승인되었다...”

이 한계 내에서, 믿건데, 문제는 완벽하게 분명하다. 스탈린에 따르면, 레닌은, 심지어 1903년부터, 독일에서 기회주의자들과 단절할 것을 요구했다. 우익(베른슈타인)뿐만 아니라 좌익(카우츠키)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1906년 12월에 레닌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플레하노프와 멘셰비키에게 자랑스럽게 지적한다. 독일의 카우츠키 조류와 러시아의 볼셰비즘 조류는 - 동일하다고. 이런 것이 스탈린이 출발한 볼셰비키 이념의 역사를 향한 소풍의 제 1편이다. 우리의 조사관의 성실성과 지식의 수준은 같은 차원에 있다!

## 레닌과 룩셈부르크

1903-1904년에 대한 그의 주장 바로 다음에, 스탈린은 1916년으로 뛰어넘어 유니우스, 즉 로자 룩셈부르크의 전쟁 팸플릿에 대한 레닌의 날카로운 비판을 언급한다. 분명히 하자면, 그 시기에 레닌은 이미 카우츠키주의를 끝내기 위한 전쟁을 선언했고, 동시에 그의 비판으로부터 조직 문제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결론을 이끌어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중도주의에 대항한 투쟁이라는 문제를 필요한 만큼 완전하게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장점은 전적으로 레닌의 편에 있었다. 하지만 레닌이 유니우스 팸플릿에 대해 쓴 1916년 10월과 볼셰비즘이 시작된 1903년 사이에 13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기간의 많은 부분 동안 로자 룩셈부르크는 카우츠키와 베벨의 중앙위원회에 대한 반대파에 있었다. 그리고 카우츠키의 공식적이고 현학적이며 속속들이 부패한 ‘급진주의’에 대한 그녀의 투쟁은 지속적으로 날카로워졌다.

레닌은 1914년까지 이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로자 룩셈부르크를 지지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활동에 열정적으로 빠져든 그는 국제적 문제에서 극단적 조심성을 견지했다. 레닌의 눈에 베벨과 카우츠키는 그들을 더 가까운 거리에서,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했고 독일 정치의 분위기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받고 있던 로자 룩셈부르크의 눈에 비쳤던 것보다 혁명가로서 켈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었다.

8월 4일 독일 사회 민주주의의 항복은 레닌에게는 전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레닌이 사회민주주의 의원단의 애국적 선언을 심은 <전진(Vorwärts)> 부수를 독일 참모부의 위조라고 생각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무서운 진실을 완전히 깨닫고 나서야, 그는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기초적 조류들에 대한 그의 평가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는 그 임무를 레닌주의자의 방식으로 수행했다. 즉 그는 그것을 한번에 완전히 끝내버렸다.

1914년 10월 27일에 레닌은 A. Schliapnikov에게 썼다.

“... 나는 이제 카우츠키를 나머지 모두보다 증오하고 경멸합니다. 그 추잡하고 비열하고 자기만족에 빠진 위선자 무리 ... R. 룩셈부르크가 옳았습니다. 그녀는 카우츠키가 고도로 발달된 ‘이론가의 노예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 더 꾸밈없이 말하자면, 그는 항상 아침꾼이었습니다. 당의 다수파에 대한 아침꾼. 기회주의에 대한 아침꾼.” (레닌주의자 선집, Vol. II, page 200) (나의 강조)

다른 어떤 문서 없이도(그리고 이런 문서는 수백개가 있다), 이 몇 줄만으로도 그 문제에 대한 역사는 부정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 레닌은 1914년의 끝무렵에 '이제'는, 현재에는, 오늘은, 과거와는 정반대로, 그가 카우츠키를 '증오하고 경멸'한다고 그 시절 그에게 가장 가까웠던 동료 중 한 명에게 알려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구절의 날카로움은 카우츠키가 레닌의 희망과 예상을 얼마나 배반했는지 부정의 여지 없이 알려준다. 그에 못지 않게 생생한 것이 두번째 구절, "R. 룩셈부르크가 옳았습니다. 그녀는 카우츠키가 고도로 발달된 '이론가의 노예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이다. 레닌은 여기서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적어도 완전히 로자 룩셈부르크의 편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진리'를 빠르게 인식한다.

이런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주요한 연대기적 이정표이자 동시에 레닌의 정치적 일대기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이념적 궤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곡선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진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레닌이 그에게 '신성함'을 바르는 비굴한 미장인들이 묘사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완전히 성장한 레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레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레닌은 계속 그의 지평선을 넓혀갔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서 배웠고 매일 그를 그가 어제 있었던 것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이 끈기에서, 꾸준히 그 자신을 뛰어넘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완고한 과단성에서 그의 영웅적인 정신은 스스로를 표현한다. 만약 레닌이 앞으로 올 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1903년에 이미 이해하고 정식화했다면 남은 그의 삶은 반복으로만 되어있었을 것이다. 현실에서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스탈린은 간단히 레닌에게 스탈린주의 각인을 찍고 그를 번호가 매겨진 격인 모음집으로 만든다.

### 룩셈부르크의 카우츠키에 대한 투쟁

로자 룩셈부르크의 카우츠키에 대한 투쟁에서는, 특히 1910-1914년에는, 전쟁, 군국주의, 평화주의에 대한 문제들이 중요한 무대였다. 카우츠키는 개량주의 강령인 군축, 국제재판소 등등을 방어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 강령을 환상으로 보고 그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했다. 이 문제에서 레닌은 의문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특정한 시기에는 로자 룩셈부르크보다 카우츠키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다. 나는 레닌과 한 그 때의 대화에서 뒤에 이어지는 카우츠키의 주장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국내 문제에서 그런 것처럼, 국제 문제에서도 개혁은 혁명적 계급투쟁의 결과이다! 국제적 계급투쟁이라는 수단으로 특정한 보장들('개혁')을 위해 싸우고 그것을 획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레닌은 카우츠키가 로자 룩셈부르크와 하던 이 격론 다음에 그가 우파(노스케 등)를 향해 공격을 돌린다면 카우츠키의 이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完全可以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레닌의 글에서 어느 정도로 표현되었는지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겠다고 지금 약속하지는 않겠다. 그런 문제는 특히 조심스러운 분석을 요구할 것이다. 나는 얼마나 빨리 레닌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의심이 자리잡았는지 기억에 의존해 주장하는 위험을 무릅쓰지도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은 대화에서만 아니라 편지상에서도 표현되었다. 이 편지들 중 하나는 카를 라데크에게 있다.

나는 목격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레닌의 이론적 일대기에서 특별히 가치있는 문서를 구해내려고 시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26년 가을에 우리가 힘을 합쳐 좌익반대파의 정강을 작성하고 있을 때, 라데크는 카메네프, 지노비예프, 나, 그리고 아마도 다른 동지들에게 레닌이 그에게 보낸 편지(1911년?)를 보여주었다. 그 편지는 독일 좌파의 비판에 대해 카우츠키의 입장을 방어하고 있었다. 중앙위원회에 의해 통과된 규정에 따라 라데크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이 편지를 레닌 연구소에 넘겨야 했다. 하지만 그것이 숨겨질까봐, 만약 스탈린주의 날조 공장에서 파괴되지 않는다면 말이지만, 두려워 라데크는 더 나은 시대가 올 때까지 그 편지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아무도 라데크의 이 태도에 어떤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라데크 그 자신이 - 비록 중책은 아니지만 꽤 활발하게- 정치적 위조품을 생산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해 두자. 라데크는 스탈린과 달리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 정통했으며, 어찌되었든 이 레닌의 편지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스탈린의 로자 룩셈부르크에 대한 불손한 평가에 동조하는 공개적인 발언을 할 수 있었다. 라데크가 야로슬라프스키의 회초리 아래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그의 죄를 덜어주지 않는다. 오직 비열한 노예들만이 마르크스주의의 원칙을 회초리의 원칙 때문에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논하고 있는 주제는 라데크의 개인적 성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레닌의 편지의 운명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데크가 지금도 그것을 레닌 연구소에서 숨기고 있는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그가 그것을 맡겨져야 하는 곳에 맡겼다는 것이다. 무형의 헌신에 대한 유형의 증거로써. 그리고 그 다음에 편지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을 곤란하게 하는 문서들과 같이 스탈린의 개인 문서고에 보존되었는가? 아니면 당의 과거에 대한 많은 다른 소중한 문서들이 파괴된 것처럼 그것도 파괴되었는가?

### 라데크에게 보낸 레닌의 편지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역사적 관심만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20년 전에 쓰인 편지가 숨겨져야 할 정치적 이유의 그림자조차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특히 중요한 까닭은 정확히 그 편지의 역사적 가치이다. 그것은 진짜 레닌을 보여준다, 무오류성을 가장하는 관료적 얼간이들이 그들 자신의 외관과 인상에서 따라 재창조한 대로가 아니라 진짜 레닌을. 우리는 묻는다. 라데크에게 보낸 레닌의 편지는 어디에 있는가? 레닌의 편지는 그것이 속한 곳에 있어야 한다! 그것을 당과 코민테른의 앞에 꺼내라!

만약 누군가가 레닌과 로자 룩셈부르크 사이의 불일치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사적 정확성은 절대적으로 레닌의 편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한 문제에서는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은 로자 룩셈부르크가 레닌에 반하여 옳았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간의 불일치는 그 중요성과 때때로 있던 극단적인 격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방식이라는 기반 위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